경기침체 여파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문화센터 가을강좌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강료를 받지않는 무료 특강이 잇따라 개설되는가 하면 1천원, 5천원 특강도 등장했다. 고물가로 문화비 지출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자 백화점들이 '저렴한 강좌'를 대거 포진시킨 것이다.

또 알뜰살림을 위한 노하우나 소규모 창업 강좌 등 실속형 강좌도 선보이고 있다.

가을학기 정규강좌는 9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광주신세계백화점이 9월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마트는 9월6일,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31일까지 접수받는다.

백화점에 가면 공짜 강좌에 단돈 1천원 특강…

문화센터도 '불황 코드'

◇저렴한 단기특강 봇물=광주신세계백화점은 '1천원'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체험 이벤트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드럼(30일), 가을 미니콘서트(10월25일) 등을 준비했다. 또 '스페셜 교육 특강'으로 글로벌 리더로 키워라(9월21일), 국제중 특목고 입학을 위한 국영수 학습전략(9월28일),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11월2일) 등이 열려 5천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운 피부 유지법(9월7일) 등 무료특강도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신바람나는 성인 공개강좌'로 노래교실(24~29일)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단기특강으로 서프라이즈 타로카드(29일·수강료 3천원)를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무료 특강 대축제'를 열고, 스트레스 해소-건강한 마음 만들기(26일) 등의 특강을 비롯해 노래로 부르는 영어동화(22일·수강료 1천원), 엄마랑 줄리스 영어발레(27일·수강료 1천원) 등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또 수강료 5천원 특강으로 테이블웨어 세팅법(27일), 멋스러운 홈파티 연출(27일) 등도 열린다.

◇생활용품 내 손으로=광주신세계백화점은 고물가 및 웰빙 트렌드에 맞춰 생활양재, 천연비누와 화장품 만들기 등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배우는 강좌도 열린다. 아내는 디자이너-생활 홈패션, 자연을 닮은 핸드메이드 비누와 화장품, 펠트를 활용해 아이방 꾸미기 등이 준비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직접 의류를 수선할 수 있도록 재봉틀로 배우는 의류리폼, 재봉틀로 배우는 홈패션을 비롯해 내가 만드는 원목가구, 생활속 행복-소품만들기 등 생활밀착형 강좌를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 맘' 도전, 전문가 과정도 풍성=광주신세계백화점은 초크아트·종이접기·POP레터링·리본아트 자격증 과정을 비롯해 선물포장 기능사 대비반, 동화구연·가베교구·그림책·북아트 논술 지도자 등 지도자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미술심리 치료사 및 바리스타 자격증, 조형놀이 지도자 과정을 준비했으며,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퀼트 강사반, 비만 상담 코디네이터 전문가, 아동미술 전문가, 한문지도자 자격증반을 열었다.

◇나도 경제 전문가=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면서 재테크 관련 강좌도 다시 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내가 하는 재무설계 DIY(9월7일~9월28일)를 4회에 걸쳐 진행하며,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카페 창업과정을 정규과정으로 개설했다.

창업과정·자격증반 개설 아이들 방학숙제도 도와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은 단기특강으로 부동산 경매 재테크 성공전략(24일), 우리 아이 보험 제대로 알기(28일), 신혼·맞벌이 부부를 위한 재무설계-내 집 마련하기 전략(28일) 등을 준비했다.

◇아이들 방학 숙제도 해결=광주신세계백화점은 '에코 키즈 이벤트'로 숲 체험(30일)을, '사이언스 페스티벌'로 워킹로봇 만들기(16일), 3D 지구본 만들기(16일) 등을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생태 숲 아카데미(29일)를 마련했다.

롯데마트 월드컵점은 '꾸러기 1일& 방학과제물 특강'을 다양하게 연다. 내가 만드는 잔디인형(26일), 종이죽 탈 만들기(26일), 나무곤충 만들기(19일), 첨성대 만들기(29일), 오징어 해부 특강(28일), 에어 로켓 발사하기(23일) 등 수강료 1천~1만2천원만 내면 방학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좌가 다채롭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009 가을학기 문화센터 강좌

■ 광주신세계백화점 (062-360-1500)

글로벌리더로 키워라	9월 21일	5천원
아내는 디자이너 - 생활홈패션	9월 1일~11월 23일	6만원
가베교구 지도자 과정	〃	10만원
선물포장 기능사 대비반	〃	7만원
내가하는 재무설계	9월 7일~28일	4만원
사이언스 페스티벌 워킹로봇 만들기 등	8월 16일, 9월 20일, 10월 18일	1천원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810)

신바람나는 성인 공개강좌 - 노래교실	8월 24일~29일	무료
재봉틀로 배우는 의류리폼	9월 1일~11월 23일	6만원
내가 만드는 원목가구	〃	〃
생활소품 만들기	〃	〃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	15만원
미술심리치료사 - 3급자격증	〃	24만원

■ 현대백화점 광주점 (062-510-8151)

건강한 마음 만들기	8월 26일	무료
카페 창업 과정	9월 1일~11월 23일	30만원
비만상담 코디네이터 전문가 과정	〃	15만원
아동미술 전문가 과정	〃	8만원

■ 장터 소식

여름속 모피 특별 초대전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3, 4층 여성의류 매장에서 '여름 속의 겨울이야기-모피 특별 초대전'을 진행한다.

아르테 밍크 숄(69만원), 아니베F 밍크조끼(89만원), 후라밍고 밍크조끼(99만원) 등이 한정 판매되며, 바이어 추천아이템으로 진도모피 밍크 블랙 재킷(2백49만원), 엘페모피 밍크 블랙그라마 재킷(3백80만원)등이 선보인다.

최대 50% '夜한 세일'

홈플러스는 밤 9시부터 영업 마감시간까지 주요 생필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夜(야)한 세일'을 12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에 '대상 청정원 순창 태양초 찰고추장'과 'LG생활건강 테크세제(2.25kg)'가 각각 46% 할인된 5천390원, 7천560원에, '애경 2080 오리지널 칫솔 탄력모(6입)가 50% 저렴한 4천480원에 판매된다.

완도산 다시마 넣은 너구리 컵

㈜**농심**은 자사의 봉지라면 '너구리'를 용기에 담은 컵라면 '너구리컵'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완도산 통다시마 건더기와 미역, 어묵, 양배추 등 푸짐한 건더기를 넣어 기존 봉지라면 너구리의 오통통한 면발과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850원.

자장면 등 푸드코트 반값

신세계 이마트는 8일까지 푸드코트의 코너별 인기메뉴 2개씩을 선정해 50% 할인 판매하는 '푸드코트 반값' 행사를 연다. 자장면, 돈가스, 냉면 등 푸드코트 인기 메뉴를 1천500~3천원의 가격에 맛볼 수 있다.

'프레스코 현미유' 출시

오뚜기는 100% 쌀눈과 쌀겨에서 추출한 식용유 '프레스코 현미유'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일반 현미유에 비해 토코페롤을 500ppm 더 많이 함유했으며 부침, 볶음, 튀김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용량은 0.5ℓ, 0.9ℓ 두가지이며 가격은 각각 4천 원, 6천900원이다.

건강기능식품엔 홍삼 최고

4년 연속 생산액 1위

홍삼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4년 연속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지난해 홍삼제품 생산액은 4천184억원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8천31억원)의 52%를 기록해 2005년 이후 4년째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는 27% 성장했는데 전체 건강기능식품 성장률 11%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그 뒤로는 알로에 제품, 비타민과 무기질, 신규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제품 '개별인정형', 인삼 순이었다. 또 오메가3와 단백질 관련 제품은 전년 대비 생산액 성장률이 88%와 92%를 기록해 20위권 인기제품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개별인정형 제품으로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공액리놀렌산'을 이용한 체지방 감소제품이 개별인정형 시장의 49%를 차지해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그 밖에 '디메틸설폰'과 '초록입홍합추출물'을 이용한 관절·뼈 건강 제품 13%, '코엔자임큐텐'을 이용한 항산화 제품 10%, '폴리코사놀'을 이용한 콜레스테롤 개선 제품이 9%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한국인삼공사가 관련 매출액 3천39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39.1%를 차지했고, 마임 583억원(7.3%), 남양 342억원(4.3%)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